호남 정치 1번지…민주 경선 각축전

●목포

권욱

김원이

배종호

윤선웅

윤소하

이윤석

이호균

목포는 매 선거 때마다 주목받는 선거구 중 하나다. 신안 하의도 출신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과거 '호남 정치 1번지'로 평가받던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셈이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목포지역위원회 입당원서 유출, 보좌진의 일탈 등 논란이 있었지만 조직을 추스리며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목포시의원 22명 중 17명, 목포를 지역구로 둔 전남도의원 5명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조직력도 상당하다는 평이다.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김원이 의원은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주력하며 목포지역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언론 패널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내 인지도를 쌓아온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세한대 교수)이 목포 선거구에서 다섯번째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배 협회장은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무안에서 목포로 지역구를 옮긴 이윤석 전 국회의원도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 태세다. 이와 함께 이호균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권욱 전 전남도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 출마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출마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원장의 고향은 진도 고군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선웅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며,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전 국회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과 손혜원 전 국회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주철현 재선 도전…선거구 조정 최대 변수

●여수갑

강용주

고영호

김경호

이용주

주철현

여수갑 선거구는 선거구 조정 문제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존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여수갑은 지난 1월 현재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통합이 현실화되면 각 선거구 입지자들도 갈라지면서 선거 판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재선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에 맞서 이용주 전 국회의원이 설욕을 벼르고 있다.

주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각각 민주당 후보, 무소속 후보로 본선에서 맞붙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이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으로 경선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선거구 획정 여부 등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주 의원은 여수시장, 민주당 여수지역위원장 활동 등을 통해 쌓은 지역 조직 기반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국립 의대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소지역주의 행태와 중앙 정치력 부족 등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존재해 경선에 어떻게 투영될지 관심사다.

강용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도 민주당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10년이 넘는 시민단체 활동과 재선 시의원을 역임해 시정 경험도 적지 않다. 지역 현안에 정통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바닥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도 민주당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른다. 김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지방분권위원회 미디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최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미래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 현안을 챙기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영호 여수갑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고 위원장은 ㈜동서울타운 대표, ㈜이앤테크 대표 등을 지냈고 현재 ㈜드림웰파워 대표를 맡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나주 vs 화순 지역 대결 가능성 주목

●나주·화순

구충곤

김덕수

김종운

손금주

신정훈

안주용

최용선

나주·화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등에서 총 7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손금주 전 의원과의 리턴매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구충곤 전 화순군수도 최근 화순에 사무실을 낸 것으로 알려져 나주 vs 화순 간 지역 대결 구도로 전개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첫 입성한 신정훈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 손금주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절치부심 끝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 조직력을 바탕으로 설욕에 성공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신 의원의 경우 민주당 경선이 다자 구도로 진행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나주·화순 바닥 민심에서 감지되고 있는 정치적 피로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다.

손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받은 압도적 지지를 재현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충곤 전 화순군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 출마 예상자 5명 중 4명이 나주 출신인 반면, 화순 출신은 구 전 군수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다크호스 중 한 명이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16명이 난립한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32%를 얻어 2등을 차지한 바 있다. 최근엔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을 운영하며 지역 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인지도를 쌓으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김덕수 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종운 나주·화순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에서는 전남도의원을 지낸 안주용 나주시 지역협의회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김재정 기자

입지자들 선거구 획정 여부 예의주시

●여수을

권오봉

김회재

여찬

임동하

조계원

여수을 선거구도 여수 갑과 마찬가지로 입지자들이 선거구 획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구 조정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선거 판도가 급변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외 후보군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선거구 기준으로 현역인 김회재 국회의원과 권오봉 전 여수시장,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이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무난한 의정·지역구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남지역 국립 의대 유치 과정에서 지역 간 경쟁·갈등 구도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통합청사, 박람회장 사후 활용 등 여수 현안을 놓고 주철현 의원과 갈등 양상을 빚는 등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의 경쟁력도 주목할 부분이다. 권 전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서 민주당 후보를 꺾는 등 지역 내 지지기반이 두텁다는 평이다.

반면, 현역 시장임에도 재선에 실패한 점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여수미래포럼'을 출범시킨 권 전 시장은 민심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계원 전 정책수석은 20대 총선에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에도 후보로 나서는 등 지역 정치권에 꾸준히 얼굴을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내 인지도가 낮은 점은 극복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쌍봉사거리 등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윤석열 정부 규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동하 전 전남도당 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한국도서출판총연합회장을 역임했고 사회복지법인인 여수복지재단 대표로 활동 중이다.

진보당에서는 여찬 전남청년진보당 준비위원장이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됐다. 여 위원장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부장 2022 여수사랑의 몰래산타 추진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